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경제지식 이해, 경제생활 인식, 금융행위의 변화를 중심으로 -*

김 규 철** · 이 성 신*** · 표 초 희**** · 박 지 용*****

【요약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계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교육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의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교육생 중 일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구·사회·경제적 정보와 개인 금융정보를 결합하여 교육 효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교육 이후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 연도, 북한에서의 부업 경험, 이전 경제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교육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맞춤형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의 효과를 경제지식 이해, 경제생활 인식, 금융행위 변화를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만 표본 규모와 관찰 기간의 제약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표본 수를 늘리는 한편, 장기 추적조사를 통해 결과를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교육효과, 시장경제 적응

* 본 연구는 송인호 외(2026)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실행 및 효과 분석」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함.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조교수(kyoochul@ewha.ac.kr)

*** 공동저자, 한국개발연구원 경제교육·정보센터 전문위원(sslee@kdi.re.kr)

**** 공동저자, 한국개발연구원 경제교육·정보센터 시민사회교육팀장(choice@kdi.re.kr)

***** 공동저자, 한국개발연구원 경제교육·정보센터 전문연구원(jjyong@kdi.re.kr)

I. 서론

2026년 1월 기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4,537명에 이르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는 일상적 경제생활의 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제도, 금융거래 방식, 소비 및 계약의 규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의 경제환경에 편입되어 경제적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북한이탈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가계소득 월 100만 원 이하는 23.5%에 달하였다(임순희 외, 2023). 게다가 2024년 전체 국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이 3.1%인 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약 22%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또한 금융사기 피해 경험 비율이 높고(김경숙, 2021), 다단계 사기 등 경제적 취약성을 악용한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약한 경제·금융생활이 단순한 소득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 비대칭, 제한된 경제적 대응 역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취약성의 문제임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으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지식의 결핍, 직업역량의 제약 등을 지적해 왔다(박진채, 2024).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체제하에서 자유로운 경쟁, 사적 소유, 가격기구, 금융상품과 같은 시장경제의 핵심 원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였고,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한 경험도 제한적이었다(송인호 외, 2024).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력이 다른 취약집단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금융감독원, 2015). 이러한 낮은 이해 수준은 비합리적 경제행동이나 취약한 금융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안정적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이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현행 제도상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12주, 400시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지역 전입 이후에는 하나센터에서 8일, 50시간의 지역적응

교육을 이수한다(통일부, 2024). 그러나 이 가운데 경제 관련 교육은 약 10시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제 생활에서 요구되는 경제적 자립 역량을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스스로도 남한 사회의 경제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경제 지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한진수, 2020; 2021).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는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 생활 적응의 어려움, 취약성의 실태를 기술하는 데 집중되어 왔으며, 실제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어떠한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설계되고, 그 교육이 참여자의 경제지식 이해도, 경제생활에 대한 인식, 나아가 금융행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취약성을 지적하는 연구는 축적되어 왔으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적 개입의 내용과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경제환경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KDI는 2024년에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이해를 위한 경제교육 핵심 개념 도출 연구」를 수행하여 시장경제 이해, 금융사기 예방, 자산관리, 주택 거래 등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생활세계와 경제적 의사결정 상황을 반영한 교육 내용을 개발하였다. 즉,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프로그램은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2024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재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세 가지 차원에서 탐색한다. 첫째, 교육 전후 측정을 통해 교육생의 경제지식 이해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경제생활에 대한 자기평가를 통해 경제생활에 대한 판단, 즉 인식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한다. 셋째, 교육생 중 인구·사회·경제적 정보와 개인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 금융행위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경제교육이 실제 금융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연령, 북한 내 시장 활동 경험 등 연구 참여자의 배경 요인이 교육 효과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도 함께 관찰한다. 이 과정에서 인구·사회·경제적 정보와 금융정보의 수집 및 활용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북한이탈주

민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운영 방식을 개관한다. 제Ⅲ장에서는 교육 효과 분석의 자료와 방법을 제시한 후, 경제지식 이해, 경제생활 인식, 금융행위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북한 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의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요

본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KDI의 기존 경제교육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2024년 도출된 경제교육 핵심 개념의 구성과 특징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2025년 신규 프로그램의 내용적 배경과 분석의 준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KDI는 KB금융공익재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체제 적응과 금융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경제금융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경제체제를 경험하고 탈북 과정에서 학습 공백을 겪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경제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설계되었다(박진채, 2024).

기존 경제금융교실은 내용 구성 면에서 체계성과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 도입부에서는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차이, 그리고 남북한 간 상이한 경제 용어를 다룸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경제현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경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어 교육 전반부에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구조와 가격결정 원리 등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다루고, 이를 일상 생활 속 경제 현상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후반부에서는 개인금융에 초점을 맞추어 신용과 부채, 보험, 재무설계 등 남한 사회에서의 금융생활 적응에 필수적인 주제를 폭넓게 다루었다. 또한 소비자 권리와 보호, 서민금융 지원제도 등 실제 생활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정보도 함께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주제의 수업 비중이 확대되는 변화가 있었다. 예컨대 전세 사기나 금융사기와 같이 피해 예방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은 주제, 교육생들이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보인 재무설계 관련 내용은 확대 편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경제금융교실은 고정된 교육과정이라기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적응 과정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경제·금융 역량을 중심으로 보완되어 온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2018년부터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교육생의 교육 만족도 결과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체제 적응과 합리적 경제생활 유지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KDI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2024년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이해를 위한 경제교육 핵심 개념 도출 연구」를 수행하였다(송인호 외, 2024).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경제활동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핵심 경제 개념과 내용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남북한 경제체제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이해, 일상생활과 연계된 경제적 사고의 형성, 그리고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주요 교육목표로 설정하였다. 핵심 개념은 남북한 교육과정 분석,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실태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적응과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포괄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 체계는 경제의 기초 원리와 거시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금융생활과 피해 예방에 이르기까지 실생활 적용성이 높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핵심 개념은 ‘남북한 경제체제 이해’, ‘시장경제 이해’, ‘국가경제 및 국제경제 이해’, ‘금융생활 이해’, ‘현장 실습 및 상담’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된다.

(1) 남북한 경제체제 이해

이 영역은 북한이탈주민이 시장경제체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경제 발전사’와 ‘남북한 경제체제의 차이점’으로 구성되며,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과 시장경제체제 및 계획경제체제의 차이를 학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경제질서를 생활 차원을 넘어 체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시장경제 이해

이 영역은 남한 사회의 경제활동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합리적 선택’, ‘시장’, ‘경제 순환과 경제주체의 역할’, ‘시장가격의 결정 원리’, ‘시장 효율성과 정부의 개입’으로 구성되며, 선택의 원리, 시장의 기능, 경제주체의 역할,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 정부 개입의 필요성 등을 다룬다.

(3) 국가경제 및 국제경제 이해

이 영역은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성장과 경기변동’, ‘물가와 인플레이션’, ‘고용과 실업’, ‘무역과 환율’로 구성되며, 주요 거시경제 지표와 경제정책, 물가 변동, 고용 문제, 대외경제 관계를 다룬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개인의 경제생활을 국가경제 및 국제경제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 금융생활 이해

이 영역은 금융제도에 대한 기초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금융생활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수입과 지출’, ‘자산관리’, ‘신용과 위험관리’, ‘금융 피해 방지 및 대응책’으로 구성되며, 소득과 지출 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 및 보험·연금의 이해, 금융사기 예방과 대응 등을 포함한다. 이는 경제교육이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함을 보여준다.

(5) 현장 실습 및 상담

이 영역은 경제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중 현장 실습이나 상담을 통해 실무적인 정보를 익히는 것이 효과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회복제도, 부동산, 세금, 보험과 연금, 창업과 폐업이 학습 개념으로 포함되며, 부동산 거래 절차, 보험 약관 살펴보기, 창업과 폐업의 방법과 절차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다룬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은 초기에는 생활 적응과 금융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24년 핵심 개념 도출 연구를 계기로 이전보다 체계적인 학습 내용과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이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실질적 경제역량 형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도출된 핵심 개념은 2025년 신규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기반이 되었으며, 본 연구의 효과 분석 프로그램의 기초로 활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신규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경제와 개인금융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 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시장경제체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경제 영역을 충실히 다루는 한편, 개개인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금융 영역을 비중 있게 편성하였다. 2024년 도출된 핵심 개념은 2025년 실제 교육 운영 과정에서 학습 내용의 배열과 차시 구성을 고려하여 ‘남한과 북한의 경제체제 차이’, ‘시장경제’, ‘국가경제’, ‘국제경제’, ‘개인금융’의 다섯 영역으로 재구성되었다. 전체 교육 내용은 <표 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 전체 교육의 개요

구분		영역	내용 요소
1주 차	1차시	오리엔테이션	교육 및 연구 참여 안내, 경제지식 이해도 및 경제생활 판단 조사
	2차시	남한과 북한의 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차이, 한국 경제 발전사
2주 차	3차시	시장경제	자원의 희소성,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과 매물 비용
	4차시	시장경제	시장의 의미, 시장의 기능과 효율성
3주 차	5차시	시장경제	시장 가격의 결정 원리
	6차시	시장경제	경제 순환, 경제 주체의 역할
4주 차	7차시	국가경제	국내총생산(GDP)과 경제 성장, 물가와 실업
	8차시	국제경제	무역, 환율
5주 차	9차시	개인금융	생애주기별 소득과 지출
	10차시	개인금융	자산 관리
6주 차	11차시	개인금융	신용, 위험 관리
	12차시	개인금융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대응책

프로그램은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매주 토요일 6주간, 12차시로 운영되었다. 1차시는 오리엔테이션, 2차시부터 12차시까지 본격적인 수업으로 편성되었다. 두 개 기수로 운영된 신규 프로그램에는 북한이탈주민 61명이 참여하였고, 이 가운데 전체 교육의 80% 이상을 이수한 수료생은 49명이었다. 또한 교육 참여자 중 연구 참여에 별도로 동의하고 인구·사회·경제적 정보 및 개인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한 인원은 26명이었다.

<표 2> 기수별 교육생 및 연구 참여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교육 모집 인원	교육 수료 인원	연구 참여자 인원
1기(2025. 5. 10.~ 6. 21.)	31	25	8
2기(2025. 5. 24.~ 7. 5.)	30	24	18
합계	61	49	26

교육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이전 및 이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는 교육 첫날 오리엔테이션 직후 실시되었고, 사후 조사는 전체 수업 종료 후 동일 문항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조사 도구는 크게 두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경제지식에 대한 이해’는 수업 내용에 기반한 16개 객관식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교육의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각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개발하였다. 문항 개발 및 수정 과정에서 연구진과 KDI 경제교육 담당자들이 문항의 내용과 표현, 난이도 등을 상호 검토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며 내용 타당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¹⁾ 둘째, ‘경제생활에 대한 판단’은 교육생의 자기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5점 척도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집단심층면접(FGI)을 통해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제교육 핵심 내용을 추출한 선행연구(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17)를 참고하여 설계하였다. 특히 해당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청년기·장년기·노년기 등 성인 학습자를 위한 경제교육 핵심 내용과 연계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경제지식의 적용 측면을 살펴보고, 교육에서 더욱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생활에 대한 판단’ 문항을 조사에 포함하였다. ‘경제지식에 대한 이해’ 문항과 마찬가지로 연구진과 KDI 경제교육 담당자 간의 반복적인 검토와 의견 조정을 거쳐 문항을 확정하였다. 한편 연구 참여에 동의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인구·사회·경제적 정보와 개인 금융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여, 주요 변수와 교육 효과 간의 관계를 함께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장에서 제시한다.

1)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 실시 전에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과 연계된 조사라는 특성과 충분한 수의 복원이탈 주민을 별도로 모집하는 데 따르는 제약 등으로 인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Ⅲ. 북한이탈주민 대상 신규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탐색

1. 경제교육 프로그램 분석 방법

본 장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신규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참여 전후의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 판단의 변화를 검토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인구·사회·경제적 정보와 개인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일부 개인금융 문항에 대해서는 국제 비교 기준에 따른 금융 이해 수준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의 효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교육 참여자는 6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49명이었다. 이 중 사전, 사후 조사에 모두 응답한 인원은 45명이었으며, 나머지 4명은 사전 조사에는 응답하였으나 사후 조사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 판단의 교육 전후 변화 분석은 사전·사후 응답이 모두 확인된 45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수료생 중 연구 참여에 별도로 동의하고 인구·사회·경제적 정보 및 개인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한 26명에 대해서는, 교육 전후 변화가 개인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반면 교육은 수료하였으나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23명은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는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사후 조사에 응답하였다. 이에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 판단의 변화는 동일 참여자의 교육 전후 응답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첫째, 교육을 이수한 49명 중 사전·사후 조사에 모두 응답한 45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에 대한 판단, 즉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연구 참여에 동의한 26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의 변화가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분석한다.

첫 번째 분석은 경제교육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에 대한 주관적 판단 수준이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분석은 연령, 교육 수준, 가족관계, 북한에서의 생활 경험, 남한 사회 적응

정도 등 개인의 배경 요인이 교육 효과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는 기초 변수, 북한에서의 경험, 남한에서의 경험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구성은 <표 3>과 같다. 또한 경제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주요 변수는 경제지식 이해도, 경제생활 인식, 금융정보 변수로 구분되며, 세부 내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다만 수집된 변수 전체가 동일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교육 효과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이거나 정책적 시사점이 큰 핵심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 인구·사회·경제적 변수

구분	세부 변수
기초 변수	성별, 출생 연도, 탈북 연도, 남한 입국 연도
북한에서의 경험	탈북 이유, 북한 거주 지역, 교육 수준, 당원 여부, 직업 유형, 부업 여부, 부업 종류, 공식 소득 규모, 비공식 소득 규모, 북한 내 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남한에서의 경험	거주 지역, 가족 여부, 교육 수준, 경제·금융교육 수강 여부, 최근 수입 여부, 남한 입국 이후 수입 여부, 남한 내 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표 4> 경제지식 이해도, 경제생활 인식, 금융정보 변수

구분	세부 변수
경제지식 이해도	교육 전 점수, 교육 후 점수, 점수 상승 폭
경제생활 인식	교육 전 자기 평가, 교육 후 자기 평가, 자기 평가 상승 폭
금융정보	신용점수, 수입, 지출, 자유입출금 자산, 저축성 자산, 투자성 자산, 연금 자산의 교육 전후 수준 및 변화 규모

한편, 본 연구는 방법론적 한계를 가진다. 경제교육의 효과를 인과적으로 엄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대조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통해 동일한 조건의 집단을 무작위로 배정하여, 한 집단에는 교육을 제공하고 다른 집단에는 교

육을 제공하지 않은 뒤 그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 참여 의사를 밝힌 교육생 일부를 무작위로 배제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 형평성과 연구윤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작위 대조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작위 대조 실험에 기반한 인과적 효과 추정에는 이르지 못하며, 교육 전후 변화와 연구 참여자 특성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효과를 해석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2.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1) 전체 교육생의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 판단 변화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전 및 이후 조사 결과,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 판단은 모두 교육 이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두 개 기수로 교육이 운영된 가운데, 경제지식 이해도는 객관식 16문항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1기는 사전 53.8점에서 사후 57.6점으로, 2기는 사전 61.4점에서 사후 66.5점으로 상승하였다. 경제생활 판단 역시 5점 척도 10문항의 평균값 기준으로 1기는 3.43점에서 3.69점으로, 2기는 3.42점에서 3.75점으로 높아졌다.

문항 수준에서 보면, 모든 영역이 동일하게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시장가격의 결정 원리, 주식과 예금의 차이, 신용관리, 분산투자의 상대적 안전성과 같이 실생활의 금융행위와 직접 연결되는 문항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개선이 관찰되었다. 반면 희소성, 경제주체의 역할, 환율 변화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과 기간에 따른 자산의 미래 가치와 같이 추상적 개념 이해나 계산적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에서는 교육 이후에도 정답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낯선 경제용어와 개념의 특성, 수업 내용의 난이도, 질문의 방식이나 표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생활 판단 문항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었다. 특히 자신이 경제나 금융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이나 금융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묻는 문항에서 교육 전 평균이 2점대에 머물렀으나 교육 후 3점대로 상승하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지식의 습득에서 나아가 경제적 자기효능감 형성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 반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경제적 불이익에 직면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지를 묻는 문항

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하락하였다. 이는 해당 주제가 교육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에서 금융생활뿐 아니라 노동, 권리구제, 제도 활용과 같은 생활경제 영역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생활 밀착형 주제에서는 일정한 학습 성과가 확인된 반면, 추상성이 높거나 개념적 이해를 요구하는 영역에서는 교육 후에도 낮은 정답률이 유지되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에서 교육 내용의 구성뿐 아니라 조사 도구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자의 사전 이해 수준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난이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문항의 용어, 진술 방식, 선택지 구성 등을 정교화하여 평가 도구의 타당성과 명료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해당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전·사후 조사에 모두 응답한 45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에 대한 판단의 변화를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통해 분석하였다. 교육 이후 점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가설에 따라 단측검정을 실시하였고, 경제지식 이해도는 교육 후 평균 0.71점 (100점 만점 4.4점) 상승하였으며, 그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제생활에 대한 판단 역시 교육 후 평균 0.29점 상승하였으며, 단측검정 결과 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교육 참여 이후 경제생활과 관련된 판단 수준이 교육 이전보다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해당 경제교육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경제지식 이해도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에 대한 판단을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교육 전후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에 대한 판단에 대한 t-검정

이해도	사례 수	평균 차이	차이의 표준 편차	표준오차	t	p-value
경제 이해도	45	0.71	2.75	0.41	1.73	0.045
경제생활 판단	45	0.29	0.56	0.08	3.52	0.0005

주: 평균 차이는 ‘사후점수-사전점수’로 산출하였으며, 양수는 교육 후 점수가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교육 후 점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사전 방향가설에 따라 단측검정을 실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무작위 통제집단을 포함하지 않는 사전·사후 비교 설계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는 교육 전후 변화의 탐색적 경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만으로 교육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 이후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는 점은 본 프로그램이 경제지식 습득과 경제생활에 대한 자기평가의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Lusardi and Mitchell(2008)은 개인의 금융 이해 수준(financial literacy)을 국제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측정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연구에서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간 개인의 금융 이해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제시한 세 문항, 즉 이자율, 인플레이션, 분산투자에 관한 문항²⁾을 경제지식 이해도 평가에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개인금융 관련 이해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생의 교육 이전 평균 점수는 3점 만점에 1.58점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점수인 1.64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Kim et al., 2017). 이는 본 연구의 교육 참여 집단이 개인금융 관련 이해 수준에서 기존 연구의 북한이탈주민 집단과 대체로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교육 이후 평균 점수는 1.80점으로 상승하여, 개인금융 관련 이해 수준이 일정 부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교육이 개인금융 이해 수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육 이후의 평균 점수 역시 남한 주민의 평균 수준인 2.29점에는 여전히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이는 Lusardi and Mitchell(2008)의 문항과 화폐 단위 등 일부 표현을 제외하면 동일하다.

Q1. 어떤 은행 계좌에 100만 원이 있고, 이 은행 계좌의 연 이자율이 2%라고 가정해 보자. 5년 동안 이 계좌의 돈을 꺼내어 쓰지 않았다고 할 때 5년이 지난 후 이 은행 계좌에는 얼마의 돈이 들어 있을까?

① 1,100,000원 이상 ② 1,100,000원 이하 ③ 정확히 1,100,000원

Q2. 어떤 은행 계좌의 연 이자율이 1%이고 매년 물가는 2%씩 오른다고 가정해 보자. 1년이 지난 후 이 은행 계좌의 돈을 모두 꺼내어 쓸 때, 지금 바로 꺼내어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을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Q3. 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여러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보다 더 안전한 수익을 제공한다. (펀드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전문적인 펀드매니저가 운용해 주는 간접투자 방식의 금융상품이다.)

① ○ ② X ③ 모름

미치지 못하였다 (Kim et al., 2017). 이는 단기적 교육을 통해 일정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금융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개인금융 이해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단계적인 교육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인구·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경제교육의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수집된 인구·사회·경제적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동일한 수준의 설명력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변수는 경제교육의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표본 규모의 제약으로 인해 결과 해석에 신중함이 요구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경제교육의 효과와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거나 정책적 시사점이 큰 핵심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³⁾

(1) 출생 연도

연구 참여자 26명 가운데 1970년대 출생자가 16명으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연령대는 5년 단위 구간별로 1~2명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출생 연도별 분석 결과는 탐색적 성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제지식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 이전에는 출생 연도가 낮을수록, 즉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해당 점수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점수가 상승하면서 집단 간 격차가 축소되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역전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즉, 객관적 경제지식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연령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에게서 교육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1955~1960년대 출생자 2명에서는 평균 점수가 하락하는 예외적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연령대별 표본 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일반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연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마다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Clark et al.(2025)은 45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3) 본 절에서 논의하는 변수(출생 연도, 북한에서의 부업 경험, 이전 경제교육 경험)에 대한 분석은 샘플 수가 부족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인터뷰 등 질적 방법을 통해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긴다.

금융교육에서 금융지식의 유의한 향상을 확인하였다. 한편 고은희·주소현(2019)은 연령 및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효과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Nakamura(2026)는 젊은 연령층에서 금융교육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경제생활에 대한 자기 인식을 분석한 결과, 교육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경제생활에 대한 자기평가가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교육 이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경제교육이 객관적 지식의 향상 여부와 별개로, 경제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같은 자기 인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출생 연도에 따른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교육 이전에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집단일수록 교육 이후 점수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교육 이후 참여자 간 점수가 일정 부분 수렴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경제생활 인식은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개선된 반면, 경제지식 이해도는 일부 연령대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내용과 전달 방식의 적절성, 그리고 경제지식 측정 문항이 실제 교육 효과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교육 전후 신용점수의 변화를 출생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교육 이전 신용점수는 출생 연도와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용점수가 연령 자체보다는 남한 입국 이후의 금융거래 이력, 소득 수준, 대출 경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 이후에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신용점수가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1991~1995년 출생자 집단에서는 평균 신용점수가 하락하였다. 이는 해당 기간 중 대출 발생 등 개별적 재무 사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융정보는 교육 이전인 2025년 5월과 교육 이후인 2025년 10월, 약 5개월 간격으로 수집되었으므로 경제교육이 신용점수에 미치는 중장기적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관찰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

교육 전후 급여 수준의 변화를 출생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 참여자의 평균 월 급여는 교육 이전 약 65만 원에서 교육 이후 약 104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1986~1990년 출생자 집단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출생 연도별로

는 급여가 증가한 집단과 감소한 집단이 혼재되어 있어 변화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관찰 기간이 약 5개월에 불과하므로 급여 변화가 경제교육의 직접적 효과인지를 인과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자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자유입출금 계좌, 저축성 자산, 투자성 자산, 연금 자산의 잔고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유입출금 계좌 잔액은 연령대별로 증가와 감소가 혼재되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저축성 자산은 1971~1975년 출생자 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교육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이는 경제교육의 효과라기보다 시간 경과에 따른 적금 납입액 증가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투자성 자산은 1991~1995년 출생자 집단에서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집단에서 자유입출금 계좌 잔액이 감소한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계좌 간 자금이 이동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1966~1970년 출생자 집단에서는 연금 자산 잔고가 증가하였고, 1976~1980년 출생자 집단에서는 연금 자산 계좌가 새롭게 개설된 것이 확인되었다. 교육 전후 관찰 기간이 5개월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금융행위 전반에 대한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연금 자산의 증가와 신규 계좌 개설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경제교육이 단기적으로라도 노후 대비와 관련된 금융행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므로 향후 장기 추적조사를 통해 그 지속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2) 북한에서의 부업 여부

북한에서의 부업 경험은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노출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에서는 국가 배급체계의 약화와 함께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산되었으며, 상당수 주민이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마당은 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경험은 남한 정착 이후의 경제·금융 이해 및 적응과도 일정한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도 북한 체류 시 부업이나 시장 활동 경험이 남한 사회에서의 경제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im and Kim, 2016).

연구 참여자 26명 가운데 17명은 북한 거주 당시 공식적인 직업 외에 추가 소득을 얻는 경제활동, 즉 부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9명은 부업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부업의 유형으로는 장마당에서의 장사가 가장 많았으며, 판매 품목으로

는 쌀, 채소, 자전거 등이 포함되었다.

교육 이전 시점에서 부업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제지식 이해도 평균 점수는 9.9점으로, 부업 경험이 없는 집단의 9.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서 장마당 장사 등 시장경제 활동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지식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실제 경제·금융활동 경험과 지식 간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Frijns et al.(2014)은 금융 경험이 금융 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Tang and Peter(2015)의 연구에서도 금융 경험이 있는 집단의 금융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이후에는 두 집단 모두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상승 폭은 부업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서 시장경제 경험이 없었던 집단일수록 경제교육을 통해 경제지식 이해도가 더 크게 개선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경제생활 판단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교육 이전 시점에서 부업 경험이 있는 집단은 경제생활에 대한 자기평가가 부업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교육 이후에는 두 집단 모두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부업 경험이 있는 집단의 점수가 부업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여전히 점수가 낮았다. 이는 객관적 지표인 경제지식 이해도의 결과와 달리, 북한에서의 시장경제 경험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경제환경 차이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생활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의 양적 자료만으로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심층면접 등 질적 연구를 통해 그 기제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업 경험 여부에 따른 교육 전후 신용점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 이전 시점에서 부업 경험이 있는 집단의 신용점수는 부업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교육 이후에는 두 집단 모두에서 평균 신용점수가 다소 하락하였으나, 하락 폭은 부업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신용점수의 관찰 기간이 약 5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가 경제교육의 효과에 기인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결과는 북한에서의 시장경제 경험이 남한 정착 이후 금융행위와도 일정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업 경험 여부에 따른 교육 전후 금융자산의 변화를 분석하면, 교육 이전부터 부업 경험이 있는 집단은 자유입출금 계좌, 저축성 자산, 투자성 자산, 연금 자산 등 대부분의 금융자산 항목에서 부업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높은 잔고 수준을 보였다. 이는 북한에서의 시장경제 경험이 남한 정착 이후의 금융자산 축적과도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 이후 자산 구성의 변화에서도 두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부업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자유입출금 계좌와 저축성 자산 잔고가 감소한 반면, 투자성 자산과 연금 자산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부업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자유입출금 계좌와 저축성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연금 자산은 교육 전후 모두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에서의 부업 경험은 경제교육 이전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지식 이해도와 금융자산 보유 수준과 관련되어 있으며, 교육 이후 자산 배분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부업 경험이 있는 집단은 유동성 자산 일부를 투자성 자산이나 연금 자산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부업 경험이 없는 집단은 자산 규모의 확대는 관찰되었으나 장기적 자산 증식이나 노후 대비를 위한 포트폴리오 전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본 분석은 표본 규모가 작고 관찰 기간이 짧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보다 장기적인 추적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3) 이전 경제교육 경험 여부

경제교육의 재교육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본 프로그램 수강 이전에 경제·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⁴⁾ 연구 참여자 26명 중 이전에 경제·금융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4명에 불과하였다.

이전 경제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교육 전후 경제지식 이해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교육 이전 시점에서 기존 경제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제지식 이해도는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교육 이후에는 두 집단 모두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상승 폭은 이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존 경제교육 경험 집단은 평균 1.75점 상승한 반면, 처음으로 경제교육을 받은 집단은 0.86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경제교육이 단발적으로 제공되기보다 반복적·누적적으로 이루어질 때 경제지식 이해도 제고에 더 큰 효과를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전 경제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교육 전후 경제생활 판단 점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교육 이전에는 경제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제생활 판단 점수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이후에는 두 집단 모두 점수가 상승하였다. 다

4) 하나원과 하나센터 등 한국 입국 시 받은 기초 경제·금융 교육은 제외하였다.

만 이 경우에도 기존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지식 이해도에서 확인된 결과와 유사하게, 경제교육의 반복적 경험이 경제생활에 대한 자기 인식과 판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전 경제교육 경험 여부가 신용점수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 신용점수가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교육 이후에는 이 집단의 신용점수가 소폭 상승한 반면, 처음으로 경제교육을 받은 집단에서는 다소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신용점수의 관찰 기간이 약 5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이를 재교육의 인과적 효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리하면, 이전 경제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은 교육 이전부터 경제지식 이해도, 경제생활 판단, 신용점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교육 이후의 변화 폭 또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손지연·박주영(2018)은 북한이탈주민의 재무교육 경험이 재무지식 수준과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Lee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의 공시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교육이 일회성 개입에 그치기보다 반복적·누적적으로 제공될 경우 더 큰 효과를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본 분석에서 기존 경제교육 경험 집단은 4명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보다는 탐색적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출생 연도, 북한에서의 부업 경험 여부, 이전 경제교육 경험 여부와 같은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은 경제교육 전후의 경제지식 이해도, 경제생활 판단, 신용점수 및 금융행위 변화와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관계는 표본 규모와 관찰 기간의 제약 속에서 확인된 것이므로 향후에는 보다 큰 표본과 장기 추적자료를 바탕으로 그 지속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의 효과를 교육생의 만족도와 운영진의 판단에서 나아가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 판단의 변화는 물론 실제 금융행위의 변화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신용점수, 소득, 소비, 금융자산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경제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구·사회·경제적 정보를 결합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진 참여자에게 경제교육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 출생 연도, 북한에서의 부업 경험, 이전 경제교육 참여 여부 등 일부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은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 판단, 그리고 일부 금융행위 변화와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의 효과를 객관적 측정 도구와 실제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제한된 사례나 경험적 관찰에 의존하여 설계 및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본 연구는 보다 증거 기반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 설계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시범 연구(pilot study)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증거 기반적인 지원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관련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충분한 표본 규모가 확보되며, 무작위 표본 선정이나 장기 추적조사와 같은 보다 엄밀한 방법론이 적용될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경험적 판단을 넘어 보다 정교한 근거에 기반하여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초기적 시도이자, 향후 증거 기반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운영된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2025년 운영된 신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 교육생의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 판단의 변화를 분석하고, 연구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구·사회·경제적 정보와 개인 금융정보를 결합하여 교육 효과와의 관련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국제 비교가 가능한 문항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개인금융 관련 이해 수준을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교육 이후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 판단이 모두 개선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국제 비교가 가

능한 개인금융 관련 세 문항의 평균 점수는 교육 이전보다 교육 이후 상승하여, 경제교육이 개인금융 관련 이해 수준 제고에 일정한 긍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교육 이후에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이해도 수준은 남한 주민의 평균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여, 단기 교육만으로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교육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출생 연도별 분석에서는 교육 이전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 판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고연령 집단에서 교육 이후 점수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경제교육이 연구 참여자 간 경제적 이해와 자기 인식의 격차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일부 연령대에서는 교육 이후 경제지식 이해도 점수가 하락하는 현상도 관찰되어, 교육 내용 구성과 평가 도구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북한에서의 시장경제 경험은 교육 이전 수준과 교육 이후 변화 양상 모두와 관련되어 있었다. 북한에서 부업이나 장마당 활동을 경험한 집단은 교육 이전부터 경제지식 이해도, 신용점수, 금융자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교육 이후 경제지식 이해도의 상승 폭은 오히려 그러한 경험이 없었던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시장경제에 대한 사전 노출이 부족한 집단일수록 경제교육을 통해 더 큰 학습 효과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금융자산 변화에서는 부업 경험이 있는 집단이 투자성 자산과 연금 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부업 경험이 없는 집단은 자유입출금 및 저축성 자산 중심의 증가 양상을 보였다.

넷째, 이전 경제교육 경험 여부 역시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기존에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은 교육 이전부터 경제지식 이해도와 경제생활 판단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 이후에도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교육이 일회성으로 제공되기보다 반복적·누적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 큰 효과를 가질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은 단발성 입문 교육보다는 단계적·연속적 교육체계 속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정책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은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기보다 교육 이전의 경제적 이해 수준, 시장경제 경험, 기존 교육 경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지식 이해 수준이 낮거나 시장경제 경험이 제한적인 집단에서는 기초 개념과 생활 밀착형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입문 교육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반복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심화된 내용과 장기적 자산관리, 노후 대비, 금융위험 관리 등을 포함한 확장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술적 측면에서는, 본 연구가 경제교육의 효과를 주관적인 만족도나 자기보고식 인식 변화 확인에서 나아가 실제 금융정보까지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연구를 실태 기술 중심에서 효과 검증 중심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취약성을 단순히 적응이나 복지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경제교육을 통해 개입 가능한 역량 형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의 내용 체계를 실천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전후의 이해·인식·행위 변화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자기보고식 설문 결과에 더해 연구 참여자의 금융행위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교육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의 방향을 정교화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의 설계와 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표본 규모가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 기간 동안 총 26명의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이는 변수 간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규모이다. 특히 여러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 분석과 같은 계량적 방법론이 요구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본 수의 제약으로 인해 이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탐색적 성격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 모집과 자료 수집 과정에서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였다. 연구진은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교육 참여에 따른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였고, 연구 참여 및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례비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 모집의 어려움, 교육 장소와 운영 여건의 제약 등으로 인해 대규모 표본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본 연구는 경제교육의 효과를 인과적으로 엄밀하게 식별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교육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육 참여 신청자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한 집단에는 교육을 제공하고 다른 집단에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뒤, 교육 전후 성과를 비교하는 무작위 통제 실험 설계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연구 설계 시 교육 참여 희망자 중 일부를 무작위로 배제하는 방식이 형평성과 연구윤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 전후 변화와 참여자 특성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큰 표본을 확보하고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경제교육의 효과가 일시적인 변화에 그치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금융행위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교육경험, 시장경제 노출 정도 등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정교한 분석 설계를 통해 어떠한 집단에 어떤 방식의 경제교육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의 효과를 자료에 기반해 검토한 초기 단계의 연구로서, 향후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정책적 개입을 설계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참 고 문 헌

- 고은희·주소현(2019), 재무·금융교육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소비자학연구*, 30(2), 45-65.
- 금융감독원(2015),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보도자료*(2015. 1. 30.).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2017),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역량 연구: 경제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 김경숙(2021), 탈북민 금융사기 피해 경험에 대한 탐색과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남북하나재단.
- 박진채(2024), KDI의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8월.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5),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송인호 외(2024),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이해를 위한 경제교육 핵심 개념 도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_____ (2026),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실행 및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손지연·박주영(2018), 북한이탈주민의 재무지식과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1(4), 55-79.
- 임순희·성민주·이승엽(2023),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조사, 북한인권정보센터.
- 통일부(2023),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 _____ (2024), 202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 한진수(2020), 취약계층의 경제 인식과 경제 행위, *사회과학연구*, 59(1), 139-163.
- _____ (2021),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지식, *경제교육연구*, 28(1), 91-111.
- Clark, R. L., Lin, C., Lusardi, A., Mitchell, O. S., and Sticha, A. (2025). Evaluating the effects of a low-cost, online financial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32, 106952.
- Frijns, B., Gilbert, A., and Tourani-Rad, A. (2014). Learning by doing: The role of financial experience in financial literacy, *Journal of Public Policy*, 34(1), 123-154.
- Kim, Byung-Yeon, and Seong Hee Kim (2016), Effects of human capital on the economic 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Seoul Journal of Economics*,

29(4), 505-528.

Kim, Minjung, Syngjoo Choi, and Jungmin Lee (2017), Economic system and financial literacy: Evidence from North Korean refugees,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53(11), 2505-2527.

Lee Taejun, Yun Taiwoong, and Haley E. (2017). What you think you know: The effects of prior financial education and readability on financial disclosure processing, *Journal of Behavioral Finance*, 18(2), 125-142.

Lusardi, Annamaria, and Olivia S. Mitchell (2008), Planning and financial literacy: How do women fare?, *American Economic Review*, 98(2), 413-417.

Nakamura, C. (2026). Financial education, age, and gender: A mixed-effects study of financial literacy in Japan, *Japanese Journal of Monetary and Financial Economics*, 13, 1-18.

Tang, N., & Peter, P. C. (2015). Financial knowledge acquisition among the young: The role of financial education, financial experience, and parents' financial experience, *Financial Services Review*, 24, 119-137.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Education Progra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Kyoochul Kim* · Sungshin Lee** · Chohee Pyo*** · Jiyong Kwak****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iveness of an economic education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Participants' economic knowledge and perceptions of economic life were assess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For a subset of participants,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financial data were also analyzed in relation to educational outcomes. Overall, the program improved participants' economic knowledge and perceptions. Its effects varied by year of birth, experience with supplementary work in North Korea, and prior economic education, highlighting the need for tailored programs. This study contributes by examining changes in economic knowledge, perceptions, and financial behavior. Future research should verify these findings using larger samples and long-term follow-up data.

Key words: Economic education, Educational effects, Market economy adaptation, North Korean defectors

원고접수: 2026년 06월 04일 심사일: 2026년 07월 13일 ~ 2026년 08월 24일
게재확정: 2026년 08월 24일

* First author and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kyoochul@ewha.ac.kr)

** Co-author, Specialist,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Korea Development Institute(sslee@kdi.re.kr)

*** Co-author, General Economic Education Unit head,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Korea Development Institute (choice@kdi.re.kr)

**** Co-author, Senior Research Associate,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Korea Development Institute(jjyong@kdi.re.kr)